



## 8장. 심판, 복음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고대인의 미래에 대한 묘사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 포르노 중독 

부재반대와 존재반대

- 본질적인 불가능

법칙과 규칙: 자연법

- 하나님께서 처하신 상황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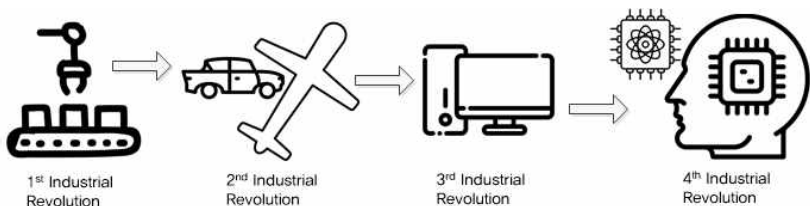
8장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이야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컴퓨팅 장치의 발달은 현실과 구분이 힘든 가상세계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	
고대인의 미래에 대한 묘사	컴퓨팅 장치가 일반화된 미래인의 삶에 적그리스도가 숨어있다.
↓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사탄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컴퓨팅 장치를 사용한다.
↓	
부재반대와 존재반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질적인 불가능	하나님께서서는 본질적인 불가능의 속성을 가지신다
↓	
법칙과 규칙: 자연법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처하신 상황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유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초대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

##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현재(2022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인류는 지난 300여년간 여러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시작된 방적기(spinning machine) 등의 기계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이후에 급격한 기계의 발달로 1,870년대부터 신규산업이 발달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포드(Ford)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를 **제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약 100년간의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부터 컴퓨터의 등장으로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류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정보화 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림8-1) 산업혁명은 인류를 마침내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할 것이고 인류는 다른 행성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산업혁명의 기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50여 년이 흐른, 2022년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로봇 공학, 나노(nano) 기술, 양자

(quantum) 컴퓨터, 생명공학,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발달로 인류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공상과학소설에서만 가능했던 기술을 현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과 실감형, 체감형 장치의 발달로 컴퓨터로 구축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개념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현대인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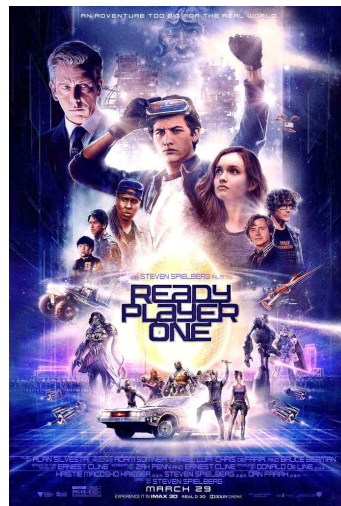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1992년 출간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소설 속의 가상의 3차원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포함한 개념으로써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①세계관(Canon), ②창작자(Creator), ③디지털통화(Currency), ④일상의 연장(Continuity), ⑤연결(Connectivity)입니다. 디지털통화, 일상의 연장 및 연결은 이미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편화된 상황에 세계관과 창작자를 더하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므로, 가상과 현실세계를 혼돈할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자의 활동이 디지털통화로 거래되는 경제시스템을 갖추도록 메타버스는 구성되고 있습니다.

학자와 연구에 따라서 메타버스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는 시뮬레이션 유형,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가상세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 세계를 결합해서 보여주는 형태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실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와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의 가상세계는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의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술적 발달이 가능할까요?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림8-1b) 매트릭스와 레디 플레이어 원은 메타버스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1차 산업혁명을 겪었던 1,760년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질문-1) 인류는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장치로 움직이는 사진을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

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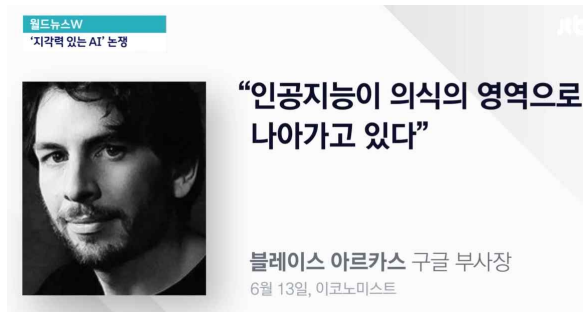
질문-2) 인류는 달(Moon)에 갈 수 있을 것인가?

1,700년대를 살았던 그 누구도 쉽게 위의 질문-1)과 질문-2)에 대해서 '네'라고 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질문-3)과 질문-4)를 고려해 봅시다.

질문-3) 인류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질문-4) 인류는 우주에서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과학자들은 질문-3)에 대해서 '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저의 대답도 '네'입니다. 인류는 향후 100년 내로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림8-1c) 인류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AI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구글의 블레이스 아르카스는 “인공지능이 의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컬럼을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자기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자신이 생

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망의 구현은 거대한 정보의 덩어리이므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인간이 단순한 정보처리에 의해 대답하는 인공지능에서 그것이 정보처리의 결과인지 '의식'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졌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4)에 대한 대답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 인류는 은하(Galaxy) 사이를 여행할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하 내부에서도 행성 간 이동 기술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다음으로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그 행성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향후 수 천년 내로 지자기(Geomagnetic)가 역전되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 10,000년 정도가 되어서 사하라 사막이 완전히 열대화가 되는 순간에도 인류가 여전히 멸종하지 않았다면, 그 때 인류는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을까요? 빠르면 1,000년, 늦더라도 100,000년 이내로 인류가 다른 행성을 개척할 기술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우주에서 생명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4)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100,00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만 우주를 창조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생명이 없는 우주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4)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0,000만 인류가 거주할 계획으로 우주를 만드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는 것은 그릇이 그릇

을 만든 주인에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4)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이제 다시 메타버스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질문-5)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질문-5)에 대해, 시각적 품질이 현실과 구분할 수 없도록 가능할까에 대한 저의 대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뇌를 다루는 다른 공학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상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정말 현실과 비슷한 메타버스는 구현 가능하겠지만, 정말 현실처럼 느끼는 메타버스는 구현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상환경이 일반화되면 그것은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한 가상환경에서 우리는 즐거움은 가상환경에 접속한 자아의 선과 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완벽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재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게임, 이용 가능한 가상현실 같은 가상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가상환경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나, 가상현실에서 음란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완벽한 메타버스에서도 이러한 폭력과 음란은 허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보는 대로 형성됩니다. 완벽한 메타버스 자체는 가치중립이지만,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느 무엇보다도 최악의 악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인의 삶이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메타버스와 다양한 컴퓨팅장치가 주는 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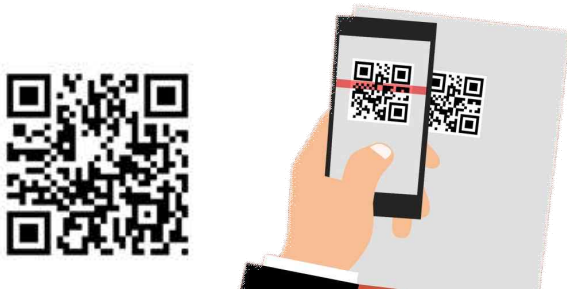
## 고대인의 미래에 대한 묘사

제1차 산업혁명을 겪었던 1,760년 경의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있어서, 현재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본다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면서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림8-2) 기원후 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의 일상을 꿈에서 본다면, 당시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더 과거 약 2,000년 전 AD 50년경 살았던 사람이, 컴퓨터 장치를 일상에서 사용하며,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통화하며, 집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본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당시의 지식으로 현재 상황을 표현하겠지만 무척 기이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림8-3) 우리는 휴대용 스마트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COVID-19로 인해 일상의 삶에서 디지털 장치의 사용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고,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위해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주로 **오른 손목의 열을 재거나, 이마의 열을 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림8-4)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 출입 시 손목이나 이마의 열을 재는 것이 일상화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체온 측정기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본다면, 손목이나 이마에 특정한 표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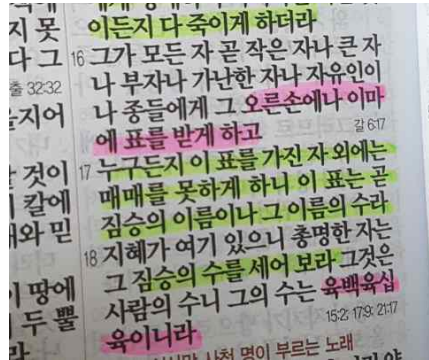
않을까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혹은 휴대폰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헬스장 같은 시설에서는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기술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일상화 된 근 미래에서는 경제활동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든 **스마트 장치를 사용하거나, 얼굴 인식 혹은 홍채(iris) 인식 등의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AD 50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손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특정한 장소 출입을 위해 얼굴인식을 하는 이러한 미래인의 삶을 꿈에서 목격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묘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어서, 이것으로 물건을 사거나 파는데, 이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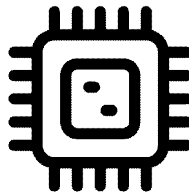
실제로 AD 50년경에 살았던, **요한(John)**은 성경(Bible)에서 자신이 꿈에서 본 미래인들의 삶을 (그림8-5)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8-5) 요한계시록(The Revelation) 13장 16절~18절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컴퓨터(컴퓨팅 장치)가 없는 현대의 삶은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문서 작성,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비행기, 신용카드, 휴대폰 등 현대의 많은 장치들은 컴퓨터가 있어야 동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장치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 그것은 컴퓨터 칩입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중 하나인 IBM-PC는 1981년 발표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진수(binary number)**를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발표된 컴퓨터는 정보의 표현을 위해서 **미국 표준 코드(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아스키)**를 사용합니다.



(그림8-6) 컴퓨터 칩(computer chip)은 우리 일상의 곳곳에 존재합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ASCII 코드는 비록 미국에서 정의한 표준코드였지만, IBM-PC가 대중화되면서, 모든 나라에서도 이 코드를 사용하였고 지금도 모든 컴퓨팅 장치는 ASCII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에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UTF-16(Unicode Transformation Format - 16 bit)**등을 표준코드로 지정하였지만, 16-비트 혹은 32-비트 인코딩(encoding)에서도 하위 호환성을 위해, 모든 컴퓨팅 장치는 코드의 하위 7-비트로 ASCII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ASCII 코드는 몇 개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코드8-1)과 같습니다. 각 줄은 (문자, 십진수, 이진수)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A, 65, 0100,0001	
Enter, 13, 0000,1101	
Space, 32, 0010,0000	
0, 48, 0011,0000	
1, 49, 0011,0001	(코드8-1)

(코드8-1)을 보면, 문자 A의 아스키코드는 십진수로 65, 이진수로 01000001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문자 'A'를 입력하면, 'A'의 아스키코드 65의 이진수표현인 01000001이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ASCII 코드를 윈도우즈 운영체제(Windows Operating System)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Notepad)을 실행해서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0,6과 5를 차례대로 누른 다음 Alt-키에서 손가락을 떼면 문자 'A'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모장을 실행해서 아래의 ASCII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Alt+067  
 Alt+079  
 Alt+077  
 Alt+080  
 Alt+085  
 Alt+084  
 Alt+069  
 Alt+082  
 Alt+043

(코드8-2)

그러면 COMPUTER+가 입력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호는 수학에서 후위표기법(postfix notation) 연산자라고 가정하면 COMPUTER를 구성하는 각 문자를 모두 더하라(add)는 의미입니다.



(그림8-7) 메모장에서는 ASCII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OMPUTER+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한 ASCII 코드를 모두 더하

면 666, 요한복음 13장 18절이 말하는 **짐승의 수**(*the number of the beast*)가 됩니다.

$$67+79+77+80+85+84+69+82+43 = 666 \text{ (식8-3)}$$

(식8-3)은 혹시나 싶어 해 본 우연한 시도로 발견한 것입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미래 인류가 매매(경제활동)를 위해서 컴퓨팅 장치를 더 활발하게 이용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미래인 들의 삶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미래인의 삶의 내용을 현재 우리가 아는 과학지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팅 장치와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달은 죽을 사람도 살리게 하고, 로봇이 사람처럼 말하게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AD 50년의 요한이 목격한다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생기가 없는 어떤 물체가 생기를 가진 것처럼 말한다고 묘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요한은 2022년 인류의 삶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직관"으로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한 미래인의 삶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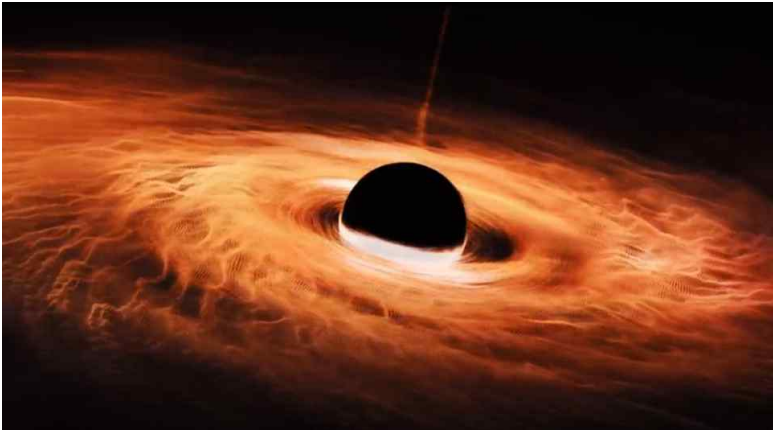
(그림8-7b) 로봇이 전원 공급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요한은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림출처: 현대모터스)

미래의 일에 대한 기록을 해석하는데 주의할 것은, 그것을 현재 일어나는 일이거나, 현재의 지식으로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해는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과학의 발달이 우주에 창조주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목격한 것 같습니다.

짐승을 특별한 객체나 특별한 인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몸에 심는 칩"등 특정한 객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하지만, 이것이 사탄(Satan)의 전략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전투에서 자신의 위치와 무기를 모두 노출하고, 싸우려는 군인은 없습니다. 패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짐승을 섬기는 것임을 모르도록 하는 교묘한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요?

짐승을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물결(wave)과 문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유용함은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근신하며 깨어서 악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 과학, 경제, 정치 등 모든 곳에서 짐승은 숨어 있으며, 그러한 모든 곳에서 악에 빠지는 행동이 "짐승의 표를 받는" 행동인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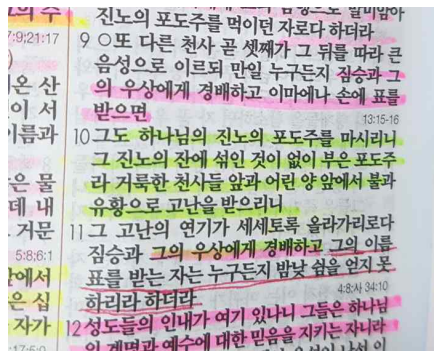
(그림8-7c) 인류의 역사는 6,000여 년 만에 종말을 맞이할까요? (그림 출처: 유튜브 TIMELAPSE OF THE FUTURE)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우주의 역사가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임박함을 느낍니다. 우주의 역사는, 개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함께 끝나는 것(혹은 영원한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와 우주가 정말 우리 역사에서 없어지는 것일까요? 절대자가 창조 후에 "좋았더라"고 하신 이 우주가 인류 역사 겨우 6,000년 만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다른 행성을 개척하지도 못했고, 다른 은하로 이동하는 비행기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우주의 비밀을 겨우 5%만 이해하고 있을 뿐인데 아담(Adam)으로 인해 시작된 우리 역사가 종말을 맞는 것일까요?

상대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는 시작이 있었으므로 끝이 있어야 하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음 후에 목격하게

될 종말이 지금 지구를 살아가고, 살아야 할 후손들이 모두 함께 경험할 종말이라는 주장은 정답의 후보를 하나 빠뜨린 주장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 인류의 삶을 묘사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buy or sell)를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라고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18절 자체는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11절 때문입니다.



(그림8-8) 요한복음 14장 9절~11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AND)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8-8)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명시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 ...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  
난을 받으리라

9절을 기록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문 **킹제임스번역(King James Version)**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ny man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 his mark in his forehead, or in his hand(9, Chap 14, Revelation)

문장을 자세히 보면, 14장 9절의 나쁜 행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이 **AND(그리고)**로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 (조건8-4) |
| ②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음 |         |

이러한 AND 조건은 성경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Genesis) 4장 4절에는 아담(Adam)의 아들인 가인(Cain)의 예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묘사됩니다.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AND)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 AND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다고 기록하고 있

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가치중립이었습니다. "가인"이 문제였지 "가인의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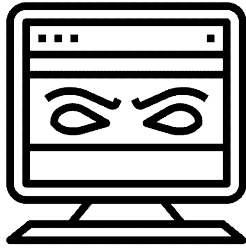
비슷한 방법을 요한계시록 14장 9절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D 조건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조건 모두가 참이어야 합니다. 먼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AND)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표가 컴퓨팅 장치이고, 표를 받는 행위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면, 컴퓨터를 전혀 사용해 보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적겠습니다.

"표(mark)" 자체는 가치중립입니다. (주장8-5)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장의 가치중립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의미에 가치를 붙여서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는 가치중립이지만, "향기"는 좋은 가치가 붙여진 냄새를 말하고, "악취"는 나쁜 가치가 붙여진 냄새입니다. 하지만, 가치가 붙여진 적절한 단어가 없을 때는 문맥이나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나쁜 가치가 붙여진 표(mark)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악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표"는 가치중립이지만, "짐승의 표"는 악한 가치가 부여되었으므로 거부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다른 저서 요한1서에서 자신이 살던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Antichr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문서를 기록할 당시에만 적그리

스도가 존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항상 있다면, 짐승의 표도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8-8b) 컴퓨터를 악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가 컴퓨팅 장치를 의미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 주위에는 짐승의 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팅 장치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라면, 악에 빠질 위험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폰이 울리고 얼굴을 숙여서 전화를 받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귀로 들으면서, 온라인 뉴스나 웹툰(Web Toon)을 검색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도박게임에 중독되어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힘을 들여야 하는 경제활동이나 학습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집이나 PC방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있기에, 약간만 경계를 늦추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

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를 요약하면 (주장8-5b)와 같습니다.

짐승은 컴퓨팅 장치를 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문화나 물결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개인이 컴퓨팅 장치를 악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이다.

(주장8-5b)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주장8-5b)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해석이므로 완전히 틀렸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으므로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며 진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대해서 가장 기본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베드로후서 3장16절)

누군가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선을 추구하는가?”일 것입니다. (주장8-5b)의 견해가 악을 추구하거나 선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견해가 맞다고 가정하고 책의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악(Evil)중 하나는 음란(adulterous, pornographic)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음란 54회, 음행 78회, 간음 51회, 행음 36회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보면, 7번째 계명으로 “간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대가로 표적(sign)을 요구하는 무리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제일먼저 ‘음란’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면서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묘사합니다. 음란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것인 아니라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이나(LINA) 생명과 연관 기관이 조사한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국 성인 남성의 53.7%가 외도(injustice) 경험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매매 비율이 50%를 넘고, 남성 대상의 통계조사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외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혼 관계를 통한 성관계가 아닌 이성과의 성관계는 53.7%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음란은 이성과의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도 발생합니다. 그 중 컴퓨팅 장치를 통한 포르노 영상의 시청은 10대 이상의 연령대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스마트 폰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개인에게 보급됨에 따라, 처음 포르노를 접하는 연령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2019년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성인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남자의 비율은 63%입니다.

익스트림테크(Extreme Tech)의 2012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포르노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량의 30%정도에 해당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2013년 자료를 보면 웹 페이지 클릭 행위의 8.5%가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트위터(Twitter)와 아마존(Amazon)을 합친 클릭 수보다 많은데, 구글 유튜브(Google Youtube)가 9.5%인 것을 감안하면 포르노 사이트연결이 얼마나 일반적인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관계가 아닌 이성과의 성관계는 간음으로 간주하며, 예수님께서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으므로, 십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는 매우 적은 수일 것입니다.

포르노 영상 시청이 일반적인 남자의 경험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포르노 시청하는 것은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포르노 시청에 대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그것을 청소년 시기의 당연한 경험이나, 개그(Gag)의 소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르노 시청을 당연한 것이나, 우스운 농담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포르노 시청은 "짐승의 표"를 받는 행동입니다.

## 포르노 중독(Porn addiction)

---

필자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최악에 빠졌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1988년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과(department)의 행사 후에 여관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포르노(pornography)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곧 중독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고, P2P(Peer to Peer)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노를 쉽게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포르노"를 "야한 동영상(야동)" 혹은 "음란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노"는 나쁜 가치가 부여된 음란한 영상을 의미하지만, "야동"은 나쁜 가치를 제거해서 죄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르노 시청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길게는 6개월 정도 끊은 적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는 포르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시청한 포르노가 주일 예배 때 떠올라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괜찮아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998년 결혼 후에도 아내의 눈을 피해 언제나 포르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포르노에 대한 내성(resistant)이 생겨서 더 강렬한 자극을 주는 포르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는 않았잖아', '나는 다른 면에서는 정직하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성범죄를 저질렀잖아. 이 정도는 범죄는 아니지."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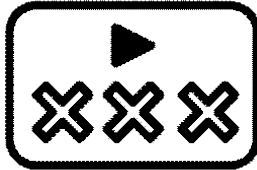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1장27절)

"남자끼리 섹스하는 건 나쁜 짓이지.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로마서 1장17절의 말씀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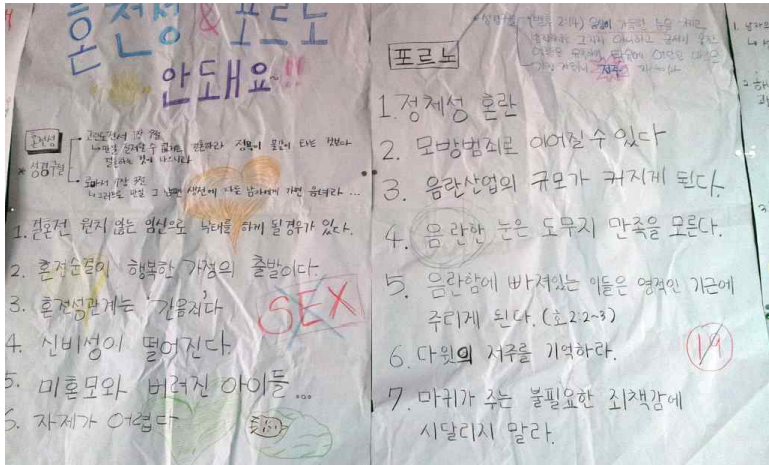
하지만 곧이어 나오는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에 좌절하고는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바른 행동의 법칙(Natural Law, 자연법)**은 나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던 제가 인천방주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로 내가 받게 될 형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게 될 형벌”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결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나에게 나의 행동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일기에, 포르노를 끊고 2년이 지나서 감사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약 25년간 중독되었던 포르노를 마침내 끊은 것입니다!



(그림8-9) 포르노 시청은 사탄의 사업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포르노 중독을 벗어났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아침 묵상(quiet time)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포르노 시청을 끊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야한 동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포르노”와 “야동”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포르노는 보지 못하고, 구글 플레이 무비(Google Play Movie)에서 19금 영화를 구매해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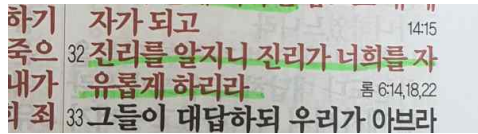
는 했습니다.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지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 방문한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했을 때, 5여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포르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짜릿하든지. 끈적끈적한 그 죄악은 왜 그렇게 달콤한지요.



(그림8-10) 2013년 다니던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포르노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음란한 눈은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고 아이들이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글을 적는 시점에서 포르노를 끊은 지 다시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이제야 그러한 죄와의 싸움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이 컴퓨팅 장치를 통해서 포르노를 보고 있다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사업에서 **"포르노 사업"은 사탄(Satan)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포르노를 시청하는 그 순간은 사탄에게 예배하고 헌금하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8-11)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Grace)였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해 본 경험을 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 부재반대와 존재반대

### absence opposite vs. existence opposite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미로 반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많도와 적다, 밝다와 어둡다, 선과 악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는 의미가 명확한 반대의 개념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들 중에는, 반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반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예로 색(color)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색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색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만약 색이 단 두 종류로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면, 색의 반대말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색의 반대말은 흰색이 되겠지만, "색"의 반대는 없습니다.

반대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다의성(equivocation)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장8-6)을 고려해 봅시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법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장8-6)

위 논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평등'이라는 용어를 전제와 결론에서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제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차이가 없는 상태를 평등이라고 가정하지만, 결론에서는 법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평등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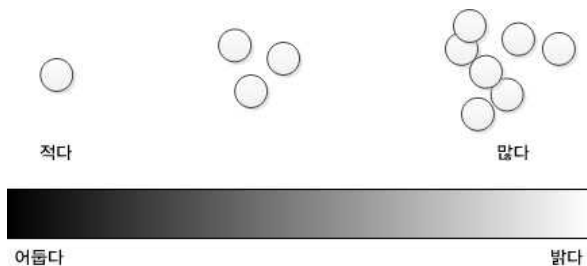
는 성(sex)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성은 다르지만, 같은 부분이 훨씬 더 많으므로, 남자와 여자를 반대로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의미가 명확한 반대의 예로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8-12) 왼쪽의 반대는 오른쪽입니다. 왼쪽의 부재상태가 오른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left)의 반대는 오른쪽(right)입니다. 반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왼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른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왼쪽의 반대를 정의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존재하도록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 대상(original target)의 부재와 상관없이 정의해 주어야 하는 반대개념을 **존재반대(existence opposite)**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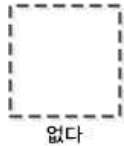


(그림8-13) 많음의 반대를 적음, 밝음의 반대를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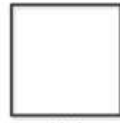
반대 개념의 두 번째 예로, 많다와 적다를 생각해 봅시다. 왼쪽, 오른쪽과는 다르게 “많음”의 반대인 “적음”은 “많음”의 부재상태를

나타내는 반대입니다. (그림8-12)에서 7개를 많다고 하고, 1개를 적다고 했습니다. 적음(1개)은 많음(7개)의 부재 상태(6개)를 나타냅니다. "밝음"과 "어두움"도 서로 반대인데, "어두움"은 밝음의 부재 상태, 즉 광자(photon)의 개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되는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를 **부재반대(absence opposite)**라고 하겠습니다.

부재반대는 무언가를 정의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반대이므로, 반대쪽을 무시하고 한 쪽의 존재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



있다

(그림8-14) 부재반대(absence opposite)는 필연적입니다. 있음의 부재상태가 없음이므로, "없음"을 정의하지 않으면서 "있음"을 정의할 방법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대표적인 부재반대의 예입니다. 어두움은 빛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빛의 부재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good)과 악(evil)은 존재반대일까요? 부재반대일까요? 선과 악이 존재반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주장8-7)을 봅시다.

"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는 것은 선하다. 배고픈 어떤 사람에게 100원을 주는 것도 선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배고픈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은 악하다." (주장8-7)

(주장8-7)은 선도 악도 아닌 상태가 존재하므로, “악”은 존재반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8-13)를 보면 “많다”와 “적다”도 아닌 “적당하다”는 중간상태가 존재하고, “밝다”와 “어둡다” 사이에도 “희미하다”는 중간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상태가 존재하므로 존재반대라는 주장은 항상 참은 아닙니다.

사실 (주장8-7)은 다의성의 오류에 빠진 문장입니다. 선과 악을 설명하지 않고, 돈을 주거나 뺏는 행위로 선과 악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은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돈을 뺏는 행위가 선(good)일 수 있고, 돈을 주는 행위가 악(evil)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부재반대인 것 같습니다. 선의 부재 상태가 악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빵을 만든다면, 빵에는 반대가 없으므로 창작자는 빵의 존재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빵을 존재하게 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부재반대를 가진 어떤 것을 만든다면, 창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함께 창작되는 반대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창작자가 “빛”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빛”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빛의 부재상태”인 어두움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선과 악이 존재반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선과 상관없이 악이 존재 가능해야 하므로, 악을 만든 창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악이 존재반대라고 믿는 사람은 우주의 두 힘을 설명하는 **이원론(dualism)**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Zoroaster)입니다. 선한 신과 동등한 악한 신의 대립과정으로 우주를 설명합니다.

악이 존재반대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선”과 “악”을 동시에 창조한 것이지요.



하지만, 선과 악이 부재반대라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선”을 창조하셨지만, 창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의 부재상태”인 악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림8-15) 신정론은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부재반대가 **신정론(theodicy)**의 질문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론에서는 (주장8-8) 혹은 (주장8-9)를 묻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주장8-8)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주장8-9)

지옥은 천국의 부재상태이며, 고통은 희락의 부재상태입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 계획에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이지만, 이 우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a goodness, instance, 인스턴스)이 아니라, 절대 선(class, 클래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절대 선이 '좋았더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선의 부재상태를 가져와 버렸다고 성경의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의도하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절대 선, 절대 사랑이신 그 분과의 부재상태를 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옥은 허튼 소리

가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실재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지옥은 우리를 전도하게 합니다.

## 본질적인 불가능

---

저의 자녀가 어릴 때 색(color)이라는 추상 명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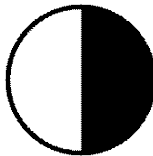
"아빠 네모는 무슨 색이야?" (질문8-10)

대답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질문들 중에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실행이나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부재반대를 가진 대상을 만들 때, 부재반대가 없이 원 창조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청8-11)를 생각해 봅시다.

"어두움 없이 빛만 만들어 주세요." (요청8-11)

빛을 만드는데 어두움 없이 빛만 창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가능을 "**본질적인 불가능**(*inherent impossibility*)"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8-15b) 어두움 없는 빛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나 고통의 존재 앞에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 “지옥없이 천국만, 고통없이 행복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본질적인 불가능에 대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이 없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시기만 하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선(The Absolute Good)이시면서, 절대 사랑(The Absolute Love)이십니다. 절대 사랑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기회를 피조물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여받았고, 우리의 “**자유 의지(free will)**”로 사랑을 거부하고 타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이 우주에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요?”라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은 무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지금도 함께 겪으시면서 질문에는 침묵하십니다.



## 법칙과 규칙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선과 천국을 만드셨지만, 선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심판에 의해 천국의 부재상태를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통해 선(the Good)을 수용하고 행동하면 천국을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창조주의 분노의 심판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 이후에 우주에 존재하게 된 법칙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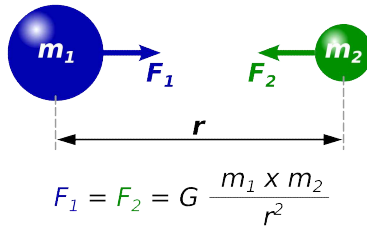
## 법칙(Law)과 규칙(Rule)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칙(rule)**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법, 사회법, 사규, 개인원칙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규칙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이므로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좌측통행'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우측통행'을 가르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법칙(law)**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법칙에는 만유인력의 법칙(law of universal gravity)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 낸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태어난 사람에게 작용했었고, 현재의 사람에도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림8-16)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m_1$ 인 물체와  $m_2$ 인 물체가 서로  $r$ 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그림출처: 영문위키피디아)

질량  $m_1$ 인 물체와  $m_2$ 인 물체가 서로  $r$ 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로켓을 쏘아서 우주로 향할 때,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도 만유인력의 법칙의 영향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법칙은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작용하는 법칙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믿으며,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법(Law of Nature)**"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연법은 **바른 행동의 법칙**이며 어떤 것이 바르며,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법률은 모두 자연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살인(murder)이 나쁜 것이므로, 모든 나라에서는 살인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8-12)을 생각해

봅시다.

“살인이 왜 나쁜 것인가?” (질문8-12)

모든 법률은 왜 살인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살인은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은 나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은 답하지 못합니다. (질문8-12)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살인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작하는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림8-16b) 사과가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아 땅으로 떨어지듯,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이 법칙이 아니라 규칙(rule)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서 도덕도 크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족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같은 나라 동포들이나 모든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합니다<sup>1)</sup>.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네 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

1) C.S. Lewis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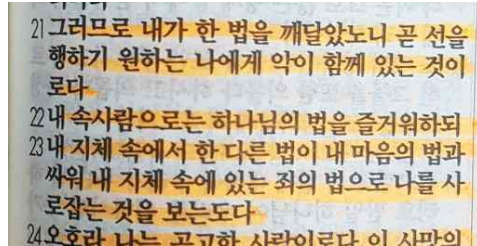
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합니다. 이렇게 자연법은 규칙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법은 거저 본능(instinct)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버(beaver)가 댐을 만드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이러한 본능은 존재합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집단 본능이 있어서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서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본능들 사이에서 판단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내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도우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외면합니다.

여러 개의 행동 후보들 가운데, 어떤 하나를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능들 사이에 선택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도덕률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설계 철학이 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설계 철학은 어떤 때는 규칙을 어기고 행동하도록 하며, 어떤 때는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시하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바른 행동의 법칙**", **자연법(Law of Nature)**이라고 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등 물리 법칙은 "사실에 대한 기술"입니다. 즉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항상 하는 일"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연법"은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항상 하지 않는 일"이 자연법입니다. 인간들은 단 한 명의 인간도 "자연법"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따라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법칙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7장은 이 법칙을 "**죄의 법(the law of sin)**"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림8-17) 로마서 7장 죄의 법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가망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 선이 다스리는 우주에서 우리는 매일 절대 선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법"을 알지만, 매일 "죄의 법"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의미있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노력을 매일 할 수는 있어도, 법칙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법칙을 거스르는 노력을 매일 할 수는 있어도, 죄의 법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림8-18) 가만히 둔 컵은 언젠가는 파괴되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나 물리 법칙을 통해서도 변증이 가능합니다.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 법칙(second law of thermodynamics)인 **엔트로피(entropy)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므로 이 법칙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이 사실이라는 것은 분자(molecule)의 운동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법칙의 영향을 받는데, 법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양상이 "게으름" 같습니다. 우리 몸의 분자들은 평균 상태를 찾으려고 하고, 분자들이 평균 상태를 찾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항상 죄에 이끌리며, 교만하지 않은 척 보이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교만, 시기와 탐욕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왜 우리는 힘들게 노력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왜 힘들게 공부해야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 왜 연습해야 할까요? 연습한 후에 연습을 소홀히 하면 왜 실력이 줄어들까요? 반대의 세상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성적을 점점 더 잘 받는 세상, 연습을 소홀히 해도 악기를 더 잘 연주할 수 있는 세상!



(그림8-19)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죄의 법이 없다면, "엔트로피 보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점 더 의미가 있어지고 행복해 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되려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을 거스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원죄, 로마서 7장의 "죄의 법"은 이렇게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실제이듯이 "죄의 법칙"은 실제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듯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죄의 법"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죄의 법에 대항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그 분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죄의 법"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법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중력의 법칙의 영향을 받듯이 "죄의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 태어나 살았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법을 거슬러 싸우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

하나님께서 "니가 얼마나 거슬러 싸웠느냐?"를 보시는게 아니라, 니가 그 법칙의 영향을 벗어났느냐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 하나님께서 처하신 상황

하나님께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창조주이시므로, 사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시므로, 죄지은 피조물을 대가(cost) 없이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이시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거나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속성	결과	본질적인 불가능
창조주	존재의 창조	사망
절대 선	엄격한 심판	대가없는 용서
절대 사랑	조건없는 사랑	용서없는 형벌

(표8-20)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으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단절의 상태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들입니다.

또한,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조건없는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없이 형벌만 내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대속(Redemption,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대속법이 존재하는데, 잘못된 사람 대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속법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1) 친족<br>(2) 자의(one's own will)<br>(3) 대가(cost) | (조건8-13) |
|--|----------|

첫 번째 조건은 친족입니다. 죄지은 사람의 친족만이 대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원해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합니다. 절대 선이신 그분의 심판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이시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죄(a sin, instance)가 아니라 죄의 법 자체(the sin, class)**를 무효화 할 대속자가 필요한데,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친족이시고, 스스로 대속을 원하시므로, 유일한 후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죽을 수 없으므로, 죄의 값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림8-20) 절대 선과 절대 사랑은 죄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본질상 죽음이 불가능하시므로 하나님이 대속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림8-21)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선과 절대 사랑의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 죄는 없으므로 대속이 가능하며, 인간이므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의 법에 영향을 받는 우리를 대속하여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분이 예수님(Jesus)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 초대

병을 고치는 세 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표8-21)과 같습니다.

- 1단계) 병이 발생한지를 인식한다.
- 2단계) 의사와 병원을 찾아간다.
- 3단계) 의사의 처방을 따라 행동한다.

(표8-21) 병을 고치는 세 단계 방법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조기 진단이 어려웠던 암 등에 대해서도,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암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조기 진단에서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을 인지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의사가 치료 방법과 치료약을 알고 있으므로, 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사에 처방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권유하는 식이요법을 수행하거나, 몸에 해로운 섭취물을 끊거나,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죄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의 법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림8-22) 내가 병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치료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고, 죄를 치료해 주는 의사이신 그 분이 처방해 놓은 처방전을 읽고, 처방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처방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회개(repent)**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인(admission)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합니다. 시인은 병을 고치는 1단계일 뿐입니다. 1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2단계와 3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2단계의 생활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인시켜주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3단계인 회계의 단계가 없다면, 의사의 처방을 듣고도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2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

**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 분을 믿는 자마다 무한한 기쁨이 무한한 강도로 무한히 계속되는 선물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초청8-14, 요한복음3장16절의 의역)**

책의 끝@